

## 서평

### 1980년대 시간성의 단절과 연속

김학선. 2020. 『24시간 시대의 탄생:  
1980년대의 시간정치』. 창비.

김영선 \_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누구에게나 그런 글이 있다. 내가 생각했던, 쓰고 싶었던 내용들이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읽는 내내 반가움과 동시에 놀라움을 안겨주는 그런 글 말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숙한 개념들과 소재들이 등장했던 책이 있었나 싶었을 정도다. 시간의 민주화란 개념부터 시간 엄수, 시간 압박, 시간 주권, 시간 기획, 시간 정치, 시간 체제까지. 물론 시간을 다룬 많은 논문과 단행본들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최근 국내 연구자 가운데 이런 시간 개념들을 하나하나 꿰어 단행본을 내놓은 경우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24시간 시대의 탄생』(이하 『24시간』)은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이진경 1997, 푸른숲)이나 “근대적 시공간의 사회이론을 위하여”(김진균·정근식 1999, 『경제와사회』 제41호) 또는 “한국의 근대적 시간체제의 형성과 일생생활의 변화”(정근식 2000, 『사회와역사』 제58권)의 연속선 상에서 시간 연구의 한국판 1980년대 버전으로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소재들은 더욱 친숙했다. 야간 통금부터 국민생활시간조사,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국제표준시, 서머타임까지. 읽는 내내 ‘어쩔 이리도 내가 풀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 말끔히 정리할 수 있었을까 하며 만감이 교차했다. 앞으로 1990년대 2000년대 또는 작금의 신기술 시대를 대상으로 어떤 소재들을 엮어가며 결과물로 내놓을지 자못 궁금하다. 저자는 시간의 가속화를 다음 작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기대가 크다. 『24시간』만큼 꼼꼼하면서 정연한 역작이 완성될 것이라 본다.

책을 훑는데, 먼저 두 개의 광고가 눈에 띄었다. 첫 번째, 27쪽의 그림 ‘24時間 아프트써비스’는 1984년 11월 27일 자 매일경제의 광고다. 모델로 나온 5명의 노동자는 회사 차량 앞에서 통일된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쓰고 즉시라도 달려갈 듯한 모습으로 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다음 문구처럼 언제든 ‘써비스’가 가능함을 알린다. “밤12시에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향온향습기가 고장나서 전산실 전산업무가 마비되신 일은 없으십니까? 저희 삼건엔지니어링 아프트써비스팀은 1時間 30分이면 서울시내 어느 곳 어느 시간이나 즉시 달려가 고도로 숙련된 기술팀에 의해 고장수리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야간아프트써비스전용’ 전화번호도 눈에 띈다.

두 번째, 61쪽의 그림 ‘한국운전대행, 언제 어디서나 전화만 주십시오’는 1982년 4월 16일 자 경향신문의 광고로 운전기사를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시키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업무에 과로하셨군요. 과로운전도 위험합니다”, “딱 한 잔이 과하셨습니다. 음주 운전은 사고의 원인입니다”, “바쁜 업무시간에 사모님 친정나들이에 차를 쓰시겠다는군요”, “고속도로나 장거리 운행 경험은

많으니까”, “초보운전이십니까? 과밀한 차량 속의 대도운행에 두려움이나 공포감은 없으신가요”, “고용운전기사분이 결근하셨습니까?” “바쁘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겠죠. 정비 각종 검사 대행” 등의 상황별 멘트와 이미지들은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자가 일터 현장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기술 서비스라면 후자에서는 대리운전의 사회적 기원이랄 수 있는 모습들이 발견된다. 전자가 기술 숙련에 기초한 전문적인 서비스라면 후자는 대행, 인력지원 및 다양한 종류의 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가 야간 전용 서비스를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365일 연중무휴임을 강조하는 듯 보인다.

두 광고는 생산 차원 및 소비 차원 모두에서 24시간 사회의 단초들이 1980년대에도 발견됨을 확인케 하는 자료다. 『24시간』은 이외에도 풍부한 통계 자료와 역사 문헌 그리고 당대의 신문기사 자료를 통해 1980년대의 시간성을 촘촘하게 그려나간다. 책이 가지는 가치 가운데 하나인 정보성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두 광고는 그 장점이 드러나는 지점일 것이다.

두 개의 그림 자료를 접하기 전까지는 1980년대와 24시간 시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의아해 했다. 연대기적 구분을 쓸 만큼 24시간 시대에 1980년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였다. 통상적으로 24시간 사회의 이미지는 주로 24시간 편의점을 떠올리거나 네온사인 불 밝히며 즐비하게 늘어선 상점들의 이미지일 텐데, 이는 1990년대 이후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365일 24시간 영업이 본격 가능하게 된 시기도 이때였기 때문이다. 물론 책 제목처럼 『24시간』은 그 ‘탄

생'을 다루고 있기에 그 단초들이 어떻게 발견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도 유의미할 것이다. 두 개의 그림에서 보듯이 1980년대의 시간성은 작금의 24시간 풀가동 사회와 '연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언뜻 드는 생각은 '왜 편의점 이야기가 빠졌을까'였다. 색인을 찾아봐도 편의점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지금처럼 동네 구석구석 24시간 불 밝힌 상점의 모습은 아니라도 1980년대의 시간성 속에 어떻게 배치되었고 어떤 의미로 소비되었는지를 저자의 관점에서 들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통상 편의점은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도입됐다고 이야기된다. 세븐일레븐 1호점인 올림픽점이 개점한 이후부터 편의점의 성장세는 폭발적이었고 24시간 '풀가동' 사회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시공간으로 여겨진다.

재밌는 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편의점(세븐일레븐 1호점) 이전에 등장했던 국내 최초의 편의점은 1982년 롯데쇼핑에서 약수시장 앞에 개점한 롯데세븐 1호점이다. 그 의미도 남달랐다. 단순히 물건만을 구매하는 곳이 아니었다. 지금처럼 슈퍼마켓을 대체하듯 동네 골목 어귀까지 들어선 것도 아니었다. 백화점만큼은 아니더라도 편의점은 서구식의 새로운 문물로 소개됐고 약속 장소나 들러볼 만한 코스로도 여겼다. 하지만 당시 편의점은 3호점을 끝으로 1984년 모두 철수했다.

편의점의 개점과 철수 그리고 올림픽을 계기로 재등장해 편의점이 본격화되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소재로 24시간이라는 사회적 시간이 1980년대의 시간성 속에 어떻게 재구조화되는지를 사회변동 관점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1980년대 내에서도 초반의 맥락과 후

반의 맥락이 다르고 그 차이(단절과 연속)에 대한 비교 분석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야간 통금 해제가 밤 시간을 ‘여는’ 조치였다면 그 열린 시간에 24시간 시대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들어섰다 사라지고 또 다시 재 등장하는 일련의 단절적 과정을 비교 관점에서 서술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24시간』은 시간정치와 1980년대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읽어야 할 만한 또는 거쳐야만 하는 책이다. 김학선은 야간 통금, 서머타임제, 법정공휴일 등을 소재 삼아 1980년대의 시간정치에 대해 분석한다. 책은 네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980년대 사회적 시간의 특수성을 개략하면서 시작한다. 둘째, 야간 통금의 해체를 본격 다루면서 동시에 일상 시간들이 군사주의와 국가주의에 어떻게 동원되는지를 살핀다. 셋째, 시간이 자원으로 개발되는 사례로 국민생활조사와 텔레비전 편성정책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서머타임제, 법정공휴일, 법정기념일 등을 소재로 시간을 둘러싼 국가와 국민의 경합 과정을 상술하고 있다.

『24시간』 책 제목과 관련해 야간 통금 해제를 다룬 2부 3장 ‘낮과 밤의 경계가 없어지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982년 1월 5일 야간통행금지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밤 시간은 닫혀 있었다. 일시적으로 해제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경찰법 처벌규칙에 의해 그리고 미군정 시기에는 미군정 포고령에 의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밤 시간은 통행이 금지된 통제의 대상이었다.

야간 통행금지 폐지가 공론화된 것은 1981년 9월 30일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던 IOC 총회장에서 야간 통금제가 거론되면서부터다. 이후 전두

환 대통령은 연두사를 통해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게임을 겨냥한 모든 분야의 준비를 본격화할 때”임을 설파하면서 통금 해제 의사를 밝혔다. 고작 2개월 만에 야간 통금이 해제된 과정에 대한 책의 설명은 군부 정권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었다.

통금이 해제되자 야간 결혼식, 심야 극장, 심야 관광, 야간 낚시, 심야 등반 등 심야 활동이 확대되었다. 심야 활동과 심야 영업이 늘어나면서 ‘야간 쓰레기 수거 기동반’이 가동되기도 했다. 또한 김학선이 지적하듯 야간 시간은 ‘휴식의 시간’이 아닌 ‘노동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야근, 심야 작업이나 야간 자율 학습 등 노동 시간과 학습 시간이 심야 시간대로 이어졌다.

통금 해제 이후 전두환 정권은 올림픽 시민, 선진 국민, 1등 국민, 세계 시민다운 금지, 자율적인 시민의식, 질서 의식 등의 새로운 윤리와 규범을 반복하여 강조해 나갔다. 청소년 비행, 음주 운전, 무질서, 퇴폐 영업 등의 문제를 자율성의 부족 탓으로 돌렸고 이는 언제든 감시 통제의 대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

야간 통금 해제로 밤 시간이 열리기는 했지만, 질서를 명목으로 한 국가 통제의 여지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일상시간은 군사주의와 국가주의에 의해 정지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군사훈련을 방불케 했던 등화관계 훈련이나 국기하강식에 의한 부동자세 유지는 우리의 일상에 국가의 시간이 어떻게 가로지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3부 ‘국민의 일상시간, 자원으로 개발되다’와 4부 ‘시간을 둘러싼 국가와 국민의 경합’은 부제로 붙은 “1980년대의 시간정치”와는 부합하는 내

용들이다.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도 “1980년대 사회적 시간의 개발과 재구성: 자율과 통제와 이중성”이었다. 그렇지만 책 제목 『24시간』와는 꼭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목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은 3장 ‘낮과 밤의 경계가 없어지다’와만이 직접 연관될 뿐이다.

3부의 소재인 국민생활시간조사, 텔레비전 편성 정책이나 4부의 소재인 서머타임제, 법정공휴일, 법정기념일에 대한 내용은 책 제목과 다른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야간 통금의 해제 부분은 별개로 하더라도 서머타임제, 법정공휴일, 국민생활시간조사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24시간 시대의 탄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다. 각 소재들이 1980년대 시간정치의 면면들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소재들의 합을 과연 24시간 시대라는 연대기적 구분으로 규정하는 데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의문은 해결되지 않는다. 3부와 4부의 내용을 책 제목이 아닌 부제를 기준 삼아 읽어 나간다면 공감 백배다.

1981년부터 KBS가 시행한 ‘국민생활시간조사’는 격년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국민의 생활시간을 주요 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가 강했음을 말해준다. 24시간을 생활필수시간, 이동시간, 노동시간, 여가시간 등으로 분류하고 여타 국가와의 비교도 가능하게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간 사용의 수치화는 일상의 모든 시간을 가시화함으로써 정권의 시간정치를 위한 재료로 삼기 위함이었다. 『24시간』은 국민생활시간조사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시간 데이터들, 이를테면 초·중·고·대학생의 학습 시간량이나 수면 시간대를 시기별로 또는 주중 주말로 구분해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생활시간조사의 다양한 내용 가운데, 야간 심야 시간 관련 실태들이 보충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시 말해, 저자의 설명대로 국민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일상 시간의 자원화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24시간 시대의 탄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의문은 6장과 7장에서도 이어진다. 6장과 7장에서 TV를 소재로 한 일상 시간의 재구조화나 생활리듬의 동시화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24시간 시대의 탄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부제 기준으로 책을 계속 읽어나간다면, 4부의 소재들 또한 독자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한국의 시계 시간(12시 30분을 가리킴)은 자연 시간(정오)보다 30분 빠르다는 건 잘 알려진 이야기다. 그렇지만 그 30분의 차이가 언제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다. 대한제국 시기(동경 127도 30분), 일제 식민지 시기(동경 135도), 이승만 정권 시기(127도 30분), 박정희 정권 이후(동경 135도)까지 그 역사적 변화에 대한 조목조목의 설명은 책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자연 시간보다 30분 빠른 시간임에도 신군부 정권은 근면성 고취, 에너지 절약, 자기발전 욕구 충족, 국민보건 향상 등의 이유를 설파하면서 서머타임제를 실시했다. 물론 그것은 올림픽 중계 시간을 서구에 맞추기 위함이었다. ‘서머타임 피로’라는 말이 돌 정도로 서머타임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및 영업시간의 연장, 수면 시간의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됐고 자연리듬과 1시간 30분이나 불일치하는 서머타임제는 ‘올림픽용’이라는 거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서평을 마치며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이는 질문이자 자문이기도 하다. 시간정치는 시간을 둘러싸고 벌이는 ‘역사 세력들’ 간의 ‘경합’을 말한다. 앞서 보았듯이 시간정치를 다룬 소재는 여럿 있었다. 하지만 시간정치의 주체들은? 그 역사 세력들의 하나로 정부가 주로 다뤄졌고 대부분 정부로부터 시작되는 정책들이 소재로 다뤄지고 있다. 책을 읽는 내내 시간정치의 주체로 자본은 언제쯤 등장할까? 어떻게 설명될까? 궁금했다. 몇 개의 업체 광고들이 중간 중간 소개는 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을 둘러싼 역사 세력들의 ‘경합’ 과정을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었다.

더 중요하게는 경합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했다. 국가와 자본은 어떤 관계를 맺었고 또 그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한 국가, 자본, 노동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시간정치의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경합의 차원에서 정부는 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다른 주체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많은 경우 정책 수용자로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앞서 언급한 비교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은 일종의 변곡점으로 국가, 자본, 노동의 역학 관계가 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노동은 시간정치의 주요 주체로 부상한다. 이에 국가와 자본의 시간정치 또한 급변하는 양상을 띤다. 이와 관련해 국가 자본의 시간 통치가 1987년을 전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러면서 노동자는 어떻게 시민 또는 중산층과 분리된 그 무엇으로 배제되어 나갔는지, 이러한 분리가 가지는 효과가 시간을 둘러싼 경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일별하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요는 1987년 전후로 한 비교 관점으로 역사 세력들의 경합 과정 속에서 24시간 시대의 탄생을 그리면 어

뻗을까 하는 상상을 한다.

저자가 ‘마치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1990년대 이후를 대상으로 시간의 가속화를 다음 연구 주제로 꼽고 있다. 1980년대의 시간성과 어떻게 연속되면서도 단절되는지, 시간을 둘러싼 역사 세력들의 경합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김학선의 관점으로 그려낸 다음 작업이 기대된다. 그때도 반가움과 놀라움을 느낄 수 있으리라. ~~다~~